

결혼·임신·육아교실 '금남의 영역' 아니다

“남자도 알아야...” 신세대 복직

성생활·분만법 거리낌없이 신청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크게 늘어

결혼·임신·출산 등에 대해 진지하게 배우려는 신세대 남성들이 늘고 있다.

최근 들어 '개인생활' '부부생활'을 중시하는 신세대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예비부부·예비부모가 함께 참여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배우는 사회프로그램이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사회단체 등이 열어왔던 신부교실·출산교실·육아교실들은 예비신부나 임신부 등 주로 여성층만을 겨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던 것과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다. 결혼 전 예비부부가 함께 결혼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 곳은 두란노서원의 '결혼예비학교'(797-5942), 이화여대 사회복지관의 '예비부부교실'(393-7728),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혼인준비교실'(780-5688) 등이다.

오는 17일부터 결혼과 자아상, 결혼과 부부역할, 결혼과 의사소통, 결혼과 성생활, 결혼과 경제생활, 결혼과 가족관계 등의 주제로 9주간 열릴 결혼예비학교에는 벌써 45쌍의 예비부부들이 신청을 마쳤다.

결혼예비학교 조직실 교장은 “처음 강좌를 마련할 때만 해도 예비신랑들이 같이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 애를 먹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예비신부보다 예비신랑들이 더 열성을 보일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 봄에 열린 결혼예비학교에 참석했던 석효수(29·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씨는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 중 '배우자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적어보자' '왜 결혼을 하려는지 자신을 살펴보자' '결혼 후 두사람이 함께 극복해야 할 경제적 문제는 무



신세대들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결혼·임신·출산 등에 대해 진지하게 배우려는 남성들이 늘고있다.

엇인가' 등의 질문에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답해 보면서 스스로 얼마나 결혼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정·학교·사회 어디에서도 제대로 가르

쳐주지 않았던 결혼생활에 대한 이런 준비교육은 실제 결혼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수강생들은 입을 모았다.

결혼 뒤 임신·출산 교육에 남성들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도 부쩍 늘었다.

몇년 전부터 예비 부모들을 대상으로 '마즈분만법'을 강의해온 서울의 차병원 등 몇몇 산부인과 병원에 이어 최근에는 서울여자기독교청년회(YWCA) 강남청소년회관(544-9725)이 2개월 과정의 '예비부모교육'을 개설했다.

17일 첫 강좌가 시작될 예비부모교육은 임신부뿐 아니라 예비 아빠가 참석해 부모의 역할과 과제, 예비부모의 스트레스, 인간감정의 이해와 대화원리, 부부갈등의 분석과 해결, 분만을 위한 의학적 상식, 21세기를 대비한 가정교육, 임신부 체조 등을 함께 배울 수 있게 했다.

“예상보다 젊은 부부들의 문의가 많아 참가 인원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서울여자기독교청년회 김선영 간사는 “부부 양쪽 모두가 임신·출산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분유·유아복 제조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임신교실'에도 임신부와 함께 참석하는 예비아빠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이 최근의 풍속이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이화여대 사회사업학과 최현미 강사는 “결혼·임신·출산이 이전 더이상 여성만의 일이거나 배우지 않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던 데서 남녀가 함께 노력하면서 계속 배워가야 하는 분야라는 식으로 사고가 바뀌어가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기자